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7호 [주제 제25866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모든 당세포를 당중앙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 당정책 관철의 결사대로 만들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일회의 진행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동력전에서 당세포의 전투적 위력을 날길없이 펼쳐갈 전체 대회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 위원장대회 2일회의가 12월 22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일회의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또한 중앙파 도의 당책임일군들도 함께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지도밑에 대회는 계속되었다.

첫날 회의를 통하여 이번 대회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향방으로 다져 나가는 데서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은 대회 참가자들은 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로 든히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2일 회의에서는 각급 단위 당세포 위원장들이 당의 기충조직을 강화해 나가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찰, 세포사업에서 나타난 결합과 원인들을 분석총회하는 토론회들이 계속되었다.

엔안군 소정협동농장 제3작업반 부문당 위원장 겸 1당세포 위원장 총만철동지, 통양평산 8월

5일 간 채광소대 당세포 위원장 허광철동지, 약주군 신풍협동농장 촉산작업반 당세포 위원장 김동일동지, 8월 25일 수산사업소 《단풍 1-05》호 당세포 위원장 리원혁동지,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매탕당세포 위원장 고정길동지, 만경대혁명사적관 교양파 당세포 위원장 최애영동지, 천리마전재종합공장 철관지 농재직장 차별작업반 당세포 위원장 김성복동지, 보건성 초금당위원회 부위원장 원장 원명철동지, 훌동평생언전생 8당세포 위원장 한미학동지, 기관차제육단 혁기당세포 위원장 김은성동지, 북창지구청년란평면 합기업소 당위원회 부위원장 최성남동지, 조선영화문화창작사 창작 5실 당세포 위원장 리광호동지 등이 토론했다.

토론회들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 이후 당중앙의 의도를 받들고 당세포를 수령 간접사용위생선으로 만장악된 충성의 세포로, 우리 당파 끝까지 생활을 함께 하는 전정한 전위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더욱 활성화하여 당세포를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세포를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일을 넣고 당조직사상 생활지도를 짜고들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끌어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세포를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일을 넣어 당세포를 당중앙을 받드는 성과를 더욱 하였다. 천리마전재종합공장 철관지봉

재직장 차별작업반 당세포에서는 당생활총회를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 당원들이 이전재품생산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였다.

당세포에서는 비판파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세워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그릇된 문제들을 제때에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었다.

당생활총회를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혁명파업수행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이 국복되고 생

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로 동당시

대의 기념비적 전축물을 일 때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만경대 혁명사적관 교양파

당세포에서는 강사들의 정치실

무수준을 높이는 것을 당세포사

업의 중요한 문제로 들어쥐고나

감으로써 태양의 성지를 지켜선 혁명사적 일군으로서의 영예를

빛내도록 하였다.

초금일군들이 정치실무적 자질

을 끌어낸는데 앞장서고

강의 활동에서 실천적 모범으로

강사들을 이끌었으며 질단안에

서로 돋고 이끄는 기풍을 확립

하기 위한 교양사업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당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실

례에 의하여 달보된다는 자각을 안

고 모든 강사들이 강의수준을 부단히 높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기판자체 육단 혁기당세포에서는 체육인들을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 강자로 키우는데 당세포사업을 지향시킬 때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멀칠수 있다는 경험을 찾게 되었다.

당세포에서는 감독, 선수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옮은 방법론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체육과학연구성과들을 교수훈련과 경기실천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분공조직과 종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곳에도 한동을 서슴없이 내대는 당세포 위원장의 실천적 행동은 몇몇 마니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당세포 위원장이 이신작회의 모범으로 소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이끌어나가는 나날에 소대는 혁명의 기념비적 전축물을 일 때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당세포 위원장이 이신작회의

모범으로 소대원들을 새로운 기

적과 위훈창조에로 이끌어나가

는 나날에 소대는 혁마다 인민

경계계획을 120% 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창조에 앞장선 본보기길단

으로 자리났다.

토론회들은 당의 과학기술 중

시사상을 만들고 자체의 과학기

술력량과 생산자대중의 힘파

지혜를 발휘하여 미제와 그 주

종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제

제봉쇄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

자체자강의 위력을 것으로 짚어서비

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생산장성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

신밀에 과학기술보급실을 영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대중적기술

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

르게 하여 우리식의 침단기계

설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광광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모든 당세포를 당중앙을 받드는 역척불변의 초석, 당정책 관철의 결사대로 만들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일회의 진행



## 1면에서 계속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참모당세포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아들여 생산을 늘여나가는데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었다.

드거운 동지적 시황에 기초하여 당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 사상교양사업을 전공적으로 벌여 실비개조와 새 제품개발에 적극 멀쳐나서도록 하였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최대로 발양시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연안군 소청협동농장 제3작업반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에 또 하나의 경험을 찾았다.

작업반초급임원들이 제일 척박하고 조건이 불리한 수십정보의 토전들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작업반안에 혁명적 열정과 땅만이 차넘치게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를 양양시켰다.

이 나날 농장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대오안에 서로 둘

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어 작업반은 헤마다 국가앞 푸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토론플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하고 『인민복무수첩』의 갈피마다에 당적량심을 새기며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면서 언급되었다.

대회에서는 일부 단위들에서 당세포사업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서 못하고있는 현황과 부족점들이 분석되고 국북당도들이 토의되었다.

토론플에서는 일부 당세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올계 조직통일하지 못한 문제, 일부 당세포위원장들이 폐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판점과 진탈식

며 깊이 새겨안았으며 전형단위를 성과와 경험을 따라매워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해 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일부 단위들에서 당세포사업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서 못하고있는 현황과 부족점들이 분석되고 국북당도들이 토의되었다.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당세포위원장대리를 잘 꾸리지 못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을 도와주고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지 못한 문제들이 비판되었다.

대회에서는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정책관찰에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길이 자각하고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당세포위원장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당정책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대중을 투쟁과 협력으로 선도해 나갈 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를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맡아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위상을 및내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대회 참가들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전군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둘격로를 열어나가는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짐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 무적 필승의 혁명 강군을 키우신 불멸의 업적 우리 장군님 오늘도 병사들과 함께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놓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눈앞에 2017년 12월에 펼쳐졌던 격적적인 좌쪽이 어려운다.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놓이 모시었다.

지금도 키울수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놓이 모신 다음 날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나는 전 세 인민 군장 병들이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어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병도를 충성으로 놓이 모신 것을 기대합니다. …

대회장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친갈하였다.

온 나라에 울려퍼진 그날의 만세 소리는 또 한분의 천술명장을 혁명 무역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절체 인민 군장 병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분출이었다.

못 잊을 역사의 그날과 더불어 주체의 전군사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적 힘, 강희길이 들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끌어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장군님은 평사들의 친애마이! 침으로 우리 장군님은 천하무적이 장군, 불세출의 영웅이시기 전에 평사들의 자리로 옮겨온 어버이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지금도 키울수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놓이 모신 다음 날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나는 전 세 인민 군장 병들이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어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병도를 충성으로 놓이 모신 것을 기대합니다. …

대회장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친갈하였다.

온 나라에 울려퍼진 그날의 만세 소리는 또 한분의 천술명장을 혁명 무역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절체 인민 군장 병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분출이었다.

못 하는 가장 용심 깊고 다심한 친애마이의 은정의 세계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시였다.

우리가 해처온 즐거운 선군장정의 길을 들어가보느라면 초도로 들어갈 때의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합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후여의 빛이 질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휘 성원들에게 선군장정의 길은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사선의 고비들의 풍속이 있다고, 높고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할복왕길에도 선군장정의 역사가 헥력히 어려여있다고 끌어내리시였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험난한 길을 쉬워없이 걷고 또 걸으시였던가?

사랑이었다. 평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들에 대한 열회같은 정대문화였다.

그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중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어느날 이론색역부의 전선시찰의

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로 보고 그들을 꿈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평사들을 위한 길이 봄에 준비해 가지고 갔던 웨기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것을 본 일꾼은 눈물을 머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에게 평사들이 기다릴까봐 웨기방을 쌓았는데 그것마저 떡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장군님은 평사들을 찾으시는 길에서 그처럼 끼니도 견느리고 휴식도 있으면서도 그로 바지르고 드시고 그 기의 무게를 감당해 보시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까지나 세태적인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분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그에 대한 명예하고도 심오한 대 태를 주실수 있었다.

어느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사랑교양사업을 위해 기울

이시는 실질과 끼고기, 큰데 대회를 주실수 있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면서 먼저 군

인들이 활용하는 교양실파 병설, 식

당을 돌아보시며 평사들이 군무생활

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때까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이야기며 훈련장의

가마마차우에 몸소 오르시며 손수

가마주정을 엘어보시면서 평사들이

어떤 국을 뛰는지 직접 알아보신 사

실, 한 평사의 음악적 성능을 해아끼

성 악배 우로 키우도록 하시고 한

평사들은 적동을 금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제까지 나파

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군인들에게 사상정신적 향식을

주는 일이지만 천만금의 제부도 아

까울것이 없으니 수많은 사상교양

수단들을 보내주시었는지 그 깊은

뜻이 헤아려져 깊이 머리를 속이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역사의 그 어느 시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귀중한 사상정신적 방식을

주는것이라고 하시며 평사들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그처럼 깊은 관심과 배려를 둘린 최고사령관이 있었던가.

우리 장군님의 평사들에 대한 이런

용모를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을 끄당기는

지구의 중역보다 더 거대한

인력이 되어 천군의 평사를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

병사의 불굴비를 친히 보아주시고 서

에도구입식을 보내주신 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평사들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무엇인가?

세계의 수많은 평장들과 군사평판

들은 이런 마음을 놓고 제나름의 해

석을 가하기도 하였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회도 남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까지나 세태적인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분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그에

대한 명예하고도 심오한 대 태를 주실

것이 없는가 깊이 마음을 쓰였다.

그후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하루를 한 장군님께서는 훈련

장에서 희열과 경훈현을 지도하시는는데

마치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셨다.

감각에 목이 메어 얼광으로 만세

의 흐름을 울리는 군인들에게 우리

장군님께서는 대약간이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일련의 순례를 했던

군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일없다고,

자신께서는 그에 대해 군무생활

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때까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이야기가 훈련장의

가마마차우에 몸소 오르시면서

가마주정을 엘어보시면서 평사들이

어떤 국을 뛰는지 직접 알아보신 사

실, 한 평사의 음악적 성능을 해아끼

성 악배 우로 키우도록 하시고 한

평사들은 적동을 금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런

용모를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을 끄당기는

지구의 중역보다 더 거대한

인력이 되어 천군의 평사를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

의 영웅한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주권이 높아 놓아졌다.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 비행

사들이 정말 강하고 하시며

엄지손가락을 흐려보이시였다.

이날의 높은 평가에는 우리

최고사령관의 신념이 담겼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군대

를 영원한 승리에 끌고주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

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군대

를 영원한 승리에 끌고주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자 하시면서 그 길에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번영한 훈련장을 찾으시었을 때

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번창

없이 수령님께서 일어 주신

선군의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 군대는

한국의 힘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번영한 훈련장을 찾으시면서

자신께서는

한국의 힘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번영한 훈련장을 찾으시면서

자신께서는

한국의 힘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번영한 훈련장을 찾으시면서

자신께서는

한국의 힘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

## 녀 맹 일 군 들 과 녀 맹 원 들 의 축 공 연

## 진 행

한일의 노정영용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기념 노령일군들과 노령원들의 경축공연에 『태양의 해발은 영원히 따라』가 22일 회행시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합경북도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일동지, 노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동지와 판계부문, 노령일군들, 노령원들이 응연을 판하였었다.

3중창과 합창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이여』로 시작된 광연부대에는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한 판계인들의 불멸의 혁명사과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대회시 『천위 전사의 모습』, 기악중주 『간장봉에 울린 아버지』, 4중창 『꽃 잎을 삼일로의 떠나리』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두절한 수명절 사용 위상과 함께 일정과 함께 노령인들의 혁명적 열정이 백박치는 설화와 함께 『김정은 장군에 영광을』, 북제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판계인들의 절친을 달았다.

시와 합창 『어머님

시와 노래 불후의 고전명작 『나의 어머니』, 손풍금중주 『장군님은 뱃전신의 아들』 등의 종목들을 보면서 판계인들은 짜우의 창도성을 암아 키우면서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왔다.

회색의 천출위인 이 신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위원회의 결정 판결을 위한 총동력을 새로운 기적적 승리를 일으켜 갈 조선녀성들의 혁명적 열정이 백박치는 설화와 함께 『김정은 장군에 영광을』, 북제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판계인들의 절친을 달았다.

한일의 노령영용 김정숙동지 새운기와 함께 개시네. 『영원히 한길을 가리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파』로 꾸난 공연은 당시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조선중앙통신】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쳤다.

제 평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에 국립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 서 노령혁명가의 기개를 힘있게 펼

